

사드 철회 마중물 故 조영삼 님 시민사회장 시민장례위원 모집

2017년 9월 21일 오전 10:11

사드 철회 마중물이 되고자 한 평화주의자
故 조영삼님 시민사회장

장례일정

빈소	한강성심병원 장례식장 1호
9/20(수)	19시 30분 천도독경 (원불교)
9/21(목)	19시 촛불기도회 (기독교) 19시 30분 천도독경 (원불교) 20시 추모 촛불
9/22(금)	19시 30분 추모 촛불
9/23(토)	08시 발인 미사 / 한강성심병원 10시 영결식 / 청와대 앞 (효자 치안센터) 11시 30분 노제 / 미 대사관 앞 18시 노제 / 성주 소성리 21시 천상낙원 '봉안식' / 밀양 성당

시민 장례위원 모집

故 조영삼님이 가시는길에 함께 할 시민장례위원을 모집합니다.

시민장례위원비: 1인 1만원 이상

모집 마감: 9/22(금) 정오

시민장례위원 신청: <https://goo.gl/LbHKFh>

시민장례위원비 계좌: 하나은행 158-910010-12705 (사드반대대책위)

시민장례위원 명단은 영결식 자료집을 통해 알립니다

故 조영삼 님 시민사회장 장례위원회

후원계좌: 하나은행 158-910010-12705 (사드반대대책위)



사드 철회 마중물이 되고자 한 평화주의자

故 조영삼님 시민사회장

빈소 한강성심병원 장례식장 1호

장례일정

9/20(수) 19시 30분 천도독경 (원불교)

9/21(목) 19시 촛불기도회 (기독교)

19시 30분 천도독경 (원불교)

20시 추모 촛불
9/22(금) 19시 30분 추모 촛불
9/23(토) 08시 발인 미사/ 한강성심병원
10시 영결식 /청와대 앞 (효자 치안센터)
11시 30분 노제 / 미 대사관 앞
18시 노제 / 성주 소성리
21시 천상낙원 '봉안식' / 밀양성당

고 조영삼 님 시민사회장 장례위원회
후원계좌 : 하나은행 158-910010-12705 (사드반대대책위)

사드 철회 마중물이 되고자 한 평화주의자 故 조영삼 님 시민사회장 시민장례위원 모집

- 시민장례위원비 : 1인 1만원 이상
- 모집 마감 : 9월 22일(금) 정오
- 시민장례위원비 계좌
하나은행 158-910010-12705 (사드반대대책위)
- 시민장례위원 명단은 영결식 자료집을 통해 알립니다

故 조영삼 님 시민사회장 장례위원회

사드 철회 마중물이 되고자 한 평화주의자

故 조영삼 님 시민사회장 시민장례위원 모집

9/19(화) "사드 가고 평화 오라, 문재인 정부는 성공해야 한다"고 외치며 분신하신 조영삼 님께서 9/20(수) 오전 운명하셨습니다.

'사드 철회 마중물이 되고자 한 평화주의자' 조영삼 님의 명복을 빌며, 故 조영삼 님의 가시는 길에 함께 할 장례위원을 모집합니다.

시민장례위원 참여 안내

- 시민장례위원비 : 1인 1만원 이상
 - 시민장례위원 신청 <https://goo.gl/LbHKFh>
 - 모집 마감 : 9월 22일(금) 정오
 - 시민장례위원비 계좌 : 하나은행 158-910010-12705 (사드반대대책위)
-
- 시민장례위원 명단은 영결식 자료집을 통해 알립니다.
 - 시민장례위원 명단 보기 >> [클릭](#)

사드철회 마중물로 산화하신 고 조영삼님



동국대 졸업 / 출옥한 비전향장기수 이인모선생을 돌봄 / 1992년 남북고위급회담장에 이인모선생과 동행했다가 특수공무집행방해로 1년6개월 옥고를 치름 / 출소후 아르헨티나에서 사업 / 1995년 북으로 송환된 이인모선생의 초대를 받고 방북 / 19년간 독일에 서 망명생활 / 2012년 구순의 부모를 모시기 위해 귀국 / 연행되어 국가보안법위반으로 1년여 옥살이 / 출소후 밀양에서 사회활동 / 2017년 9월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에서 사드배치 철회를 요구하는 유서를 남기고 분신 / 9월 20일 오전 9시 34분 운명 / 향년 58세

사드철회마중물 故 조영삼 님 시민사회장 장례위원회

조영삼님의 유서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다

축약

문재인 대통령님, 사드는 안 됩니다. 대통령님도 사드는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긴장과 전쟁의 위험만 가중시킬 것임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더 큰 그림이 있을 거라 생각도 해 보았지만 아무래도 이견 아닌 것 같습니다. 초강대국 미국과의 '밀당'이 쉽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처음부터 이렇게 밀리면 뒷감당을 어찌하시렵니까.

저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진실로 진실로 바라는 사람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 우리 후손들의 미래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드는 결코 전쟁방지나 평화를 지키는 무기가 아닐 것입니다. 대통령님도 이런 상식적인 사실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배치를 앞당긴 것은 현실국제정치의 냉혹한 벽을 뚫지 못한 한계를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드배치로 인해 우리 민족의 미래에 먹구름이 잔뜩 밀려오고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치킨게임의 결과는 남북 공멸의 길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매의 눈을 치켜뜨고 있는 일본이 보입니다.

북의 책임 있는 당국자에게 당부와 부탁을 드립니다. 민족의 운명은 우리민족끼리 합심하여 짊어지고 간다는 정신으로 미국과 양자간 '밀당' 하기 전에 남북대화의 장에 나서기 바랍니다.

'백짓장도 맞들면 낫다'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혹시 아니까? 미국을 꿈쩍 못하게 하는 묘수가 남북대화 과정에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인모 선생과의 인연으로 세상의 주변부를 떠돌며 인생행로와 역정이 여러 번 뒤바뀐 사람으로서 이런 부탁과 당부를 드릴 자격이 조금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대통령님을 인간적으로 존경했고 사랑했습니다. 이 세상 소풍 끝나고 나서도 그러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의 산화가 사드철회를 위한 미국과의 협상에서 한 방울이나마 좋은 결과의 마중물이 된다면 연연세세 기문의 큰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그물에 걸리지 않은 바람의 자유인으로 살고자 했던 어느 이름 없는 평화주의자가 한 떨기 마지막 잎새를 떨굴으로써 이 땅에 평화를 기원한 나라, 대한민국을 알보지 말라고... 그는 백만 촛불혁명의 한 사람이었다고, 대한민국 정부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라고 미국에게 당당히 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들풀하나 조영삼 드림

故 조영삼 님 유서 전문

2017. 9. 20. [애도 성명] '사드 철회 마중물이 되고자 한 평화주의자' 조영삼 님의 명복을 빌며

--

4

www.peoplepower21.org/english  

